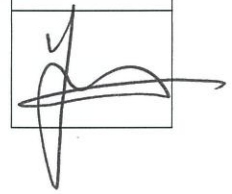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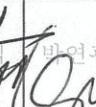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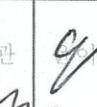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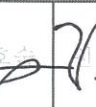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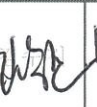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020학년도 제1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20. 05. 07(목) 11:00 ~ 12:35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11명) : 김해동, 채호석, 박연관,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회의지원(1명) : 엄중섭
 - 학 교(1명) : 변경록 회계담당
4. 회의 안건
 -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
 - 기타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중섭 기획팀원이 재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윤호숙 의장이 2020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2019학년도 결산 자문
 - 윤호숙 의장의 요청에 따라 변경록 행정팀 회계담당이 2019학년도 결산(안)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 현황(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등), 비용 현황(보수, 관리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고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함.

대 학 평 의 위 원 회									
									

<보고내용 요약>

○ 사이버한국외대 2019학년도 주요 수입 현황

- ① 등록금 수입 : 15,988백만원(전년 대비 약 12억원 증가)
- ② 전입 및 기부 수입 : 5,636백만원(국고보조금 5,633백만원 등)
- ③ 교육부대 수입 : 180백만원(입시전형료 123백만원 등)
 - 지원자 증가로 인하여 수험료가 증가함.
- ④ 교육외 수입 : 294백만원(예금이자 287백만원, 잡수입 7백만원)

○ 사이버한국외대 2019학년도 주요 지출 현황

- ① 보수 : 6,584백만원
- ② 관리운영비 : 2,968백만원
- ③ 연구학생경비 : 9,006백만원(교외장학금 5,160백만원, 교내장학금 2,942백만원 등)

<주요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 김해동 의원 : 이전 대학평의회 회의 진행시에는 결산서 원본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금번 회의에서는 요약본으로 진행하다 보니 훨씬 접근해서 파악하기가 쉬운 것으로 생각됨. 2019학년도 결산 업무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김해동 의원 : 자금계산서 수입에서의 기본금 항목과 대차대조표 부채 및 기본금에서의 기본금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함.
- 변경록 회계담당 : 예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법인에서 대학으로 기본금 약 10억을 전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법인에서 2018학년도에 마지막 잔액인 1.95억을 전출함으로써 최종 완료가 되었음. 자금계산서에 2019학년도 기본금 항목에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는 2018학년도를 끝으로 기본금 전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2018학년도까지 법인에서 대학으로 전출한 기본금 총액이 대차대조표 법인 기본금 항목에 1,045백만원임.
- 김해동 의원 : 법인 기본금 전출이 종료되었다면 향후에는 법인에서 대학으로 전출하는 근거 내용이나 항목은 없는 것인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만약에 향후 법인에서 대학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법인 기본금 항목이 아닌 법정부담전입금이나 경상비전입금 등 항목에 반영이 됨.
- 김수진 의원 : 최근에 법인전입금이 있었는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최근 2개년 동안은 없었으며, 3년 전에 법정부담금이 조금 있었음.

- 원종민 의원 : 기본금 10억이 모두 전입 완료된 것인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교육부 감사결과 법인에서 대학에 기본금 10억을 전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전에 법인에서 받은 기본금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라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개년에 걸쳐 전출하였으며 2018학년도를 끝으로 완료되었음.
- 윤이식 의원 : 어제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총장님께 법정부담전입금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더니 금년부터 법정부담전입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들었음.
- 김해동 의원 : 사이버외대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최서연 의원 : 연구학생경비 중 실험실습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 변경록 회계담당 : 실험실습비 항목은 강의콘텐츠 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함.
- 최서연 의원 : 장기차입금은 몇 년 상환인지 질의함.
- 변경록 회계담당 : 10년 분할 상환임.
- 원종민 의원 : 차입금이 44억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차입금에는 39.8억이 반영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승인받은 기채 총액은 44.2억이 맞음. 1년내에 상환해야하는 금액 4.42억은 단기차입금 항목에 반영되어 있으며 나머지 잔액이 장기차입금 39.8억임.
- 김병철 의원 : 장기차입금은 고정 금리인지 변동 금리인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변동 금리로 알고 있음.
- 윤호숙 의장 : 향후 제2교사동 신축 관련 사업 진행시에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 변경록 회계담당 : 지금 기획처에서 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대출을 받지 않고 제2교사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윤호숙 의장 : 현재 제2교사동을 8층 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이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함.
- 변경록 회계담당 : 현재 제2교사동 신축 관련 비용을 약 7~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2019학년도 결산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약 72억이 있고, 2020~21학년도에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느정도 사업비용이 충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원종민 의원 : 오프라인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약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 변경록 회계담당 : 예를 들어 결산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이 2016학년도 137억, 2017학년도 142억, 2018학년도 147억, 2019학년도 160억임. 또한, 2019년도 3월과 2020년도 3월 수업료를 비교해본 결과 소폭 증가하였음. 이러한 4개년 간 등록금 수입의 증가세와 2020학년도 수업료 증가분을 지출 부분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음.
- 원종민 의원 :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원의 부분이라고 보여짐.
- 변경록 회계담당 :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재학생이 약 400명이 증가하였음.
- 원종민 의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020학년도 2학기 재등록률이 걱정됨.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에는 이미 수업료를 납부한 상황이지만 2학기는 다르다고 생각함.
- 박연관 의원 : 제2교사동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함.
- 유정은 의원 : 재등록률 올리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음.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에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음.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평가는 교수님들의 고유 권한임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고려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림. 중간고사 이후 바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의견이 많이 학교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학생대표의 의견은 금번 회의 안건과는 약간 안맞을 수 있음. 다만,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면 학점을 양산하게 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발생할 수 있고 평가의 공정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언론을 통해 제시되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이 3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시설 및 설비 등 인프라의 부족, 두 번째는 교수자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부분, 세 번째는 평가의 공정성 부분이 있음. 자칫하면 사이버대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난이도 관련 의견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 원종민 의원 :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대표의 의견이 등록금 수입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봄. 학생들의 만족도 중에는 시험이나 평가에 대한 만족도, 학업의 난이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재등록률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시험도 너무 어려우면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도 발생할 수 있음.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윤호숙 의장 : 향후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윤호숙 의장 : 의원분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9학년도 결산(안) 자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